

국내경기는 8개월만에 악화

~ 연말 특수에 대한 반동 감소와 관광 침체가 하락세 요인으로 ~

(조사대상 2만 3,859사, 유효회답 1만 620사, 회답율 44.5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의 포인트

- 2026년 1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.6포인트 감소한 43.8로 8개월 만에 악화되었다. 국내 경기는 연말 판매경쟁 및 여행 수요에 대한 반동이 나타나 개선 흐름 속에서 일단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났다. 향후의 국내경기는 비용 증가와 금리 인상의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10개 업종 가운데 7개 업종이 악화, 3개 업종이 개선되었다. 특히 『서비스』 『소매』 등 개인소비관련 분야의 침체가 눈에 띈다. 규모별로는 「대기업」이 보합을 보인 반면 「중소기업」 및 「소규모기업」은 악화되었다. 지역별로는 『토호쿠』 『킨키』 등 9개 지역이 악화, 『키타칸토』 지역만 개선되었다. 한파·폭설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.
- [이달의 토픽스] 관광DI는 42.8로 전부터 악화되었다. 내역을 보면 「음식서비스」 및 「숙박서비스」 분야의 침체가 두드러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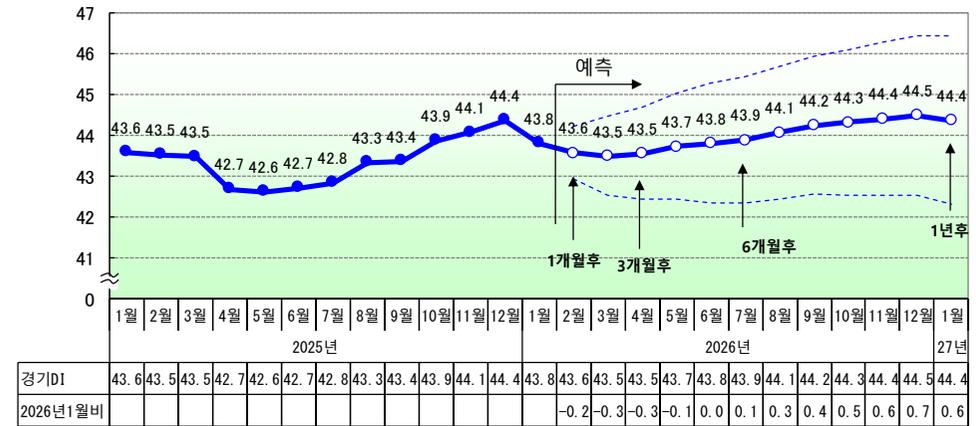
< 2026년 1월 동향: 제자리걸음 >

2026년 1월의 경기 DI는 전월대비 0.6포인트 감소한 43.8로 8개월만에 악화되었다. 국내경기는 연말 판매경쟁 및 여행 수요에 대한 반동이 나타나 개선 흐름 속에서 일단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났다.

1월은 연말 판매경쟁의 반동 감소 및 폭설로 인하여 외출이 자제되면서 내구재 등 개인소비 관련이 침체하였다. 특히 숙박업이나 관광버스·렌터카 등 관광산업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. 물류비 및 인력부족에 따른 비용 상승도 악재로 작용하였으며, 설비 투자 의욕 또한 약간 저하되었다. 한편 추가상승 등 금융시장은 견조세를 보이는 한편 호조인 AI투자 및 소프트 개발을 중심으로 무인화·디지털화에 대한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추이하였다.

< 향후의 전망: 보합세 >

향후는 고물가 대책 실시 및 세계개편을 통한 가처분소득 개선 등 가계의 실질구매력 회복이 지속적인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다. 겨울철 전기·가스요금 지원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. 투자 감세·연구 개발 지원은 설비투자를 뒷받침할 것이다. 한편 총선 이후의 경제정책 실시 및 장기금리 상승, 일중(日中) 관계를 포함한 불안한 국제정세는 우려요소이다. 향후는 비용 증가와 금리인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.



*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. 점선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고 있다.